

2007년 2월

교육학석사(역사교육)학위논문

一蠹 鄭汝昌의 師友와 思想的 役割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장 은 영

一蠹 鄭汝昌의 師友와 思想的 役割

A Study on Ildu Jung Yeo-chang's Friendship and
Ideological Role

2007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장 우 영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00373511 2007-04-09

一蠹 鄭汝昌의 師友와 思想的 役割

지도교수 이 종 범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역사교육)학위 청구 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6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장 은 영

장은영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최진규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종범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성한 인

2006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I. 머리말.....	1
II. 정여창의 스승과 교우.....	2
1. 정여창의 두 스승.....	2
1) 栗亭 李寬義.....	2
2) 佔畢齋 金宗直.....	4
2. 정여창의 교우관계.....	6
1) 寒暄堂 金宏弼.....	6
2) 醒狂 李深源.....	10
3) 秋江 南孝溫.....	12
4) 濯纓 金駟孫.....	15
III. 정여창의 학문과 사상.....	18
1. 성리설.....	18
1) 이기설.....	18
2) 선악천리설.....	20
3) 입지론.....	21
2. 정여창의 교육사상.....	23
3. 정여창의 정치사상.....	25
IV. 맺음말.....	28
참고문헌.....	30

ABSTRACT

A Study on Ildu Jung Yeo-chang's Friendship and Ideological Role

Eun-young Jang

Advisor : Prof. Jong-bum Lee

Major in Histor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Jung Yeo-chang who was a model of learning and virtue and pioneer of Chosun Confucianism was born in Hamyang, Gyeongsangnamdo when King Munjong ascended the throne in 1450.

However, he was exiled to Jongsung because he was a pupil of Kim Jong-jik when Muosahwa happened in 1498 and died in 1504 under the 10th reign year of Yeonsangun. However, Mr. Jung was designated as one of the five Oriental sages as he was recognized as a representative confucian scholar due to his learning and virtue.

He had much opposition and conflict occurring in the political process involved in succession connected to King Sejo's usurption of the throne. Therefore, this study is to identify friendship which was an environmental factor that decides Jung's social status and his learning and ideological role.

He showed high filial piety to his parents and was dedicated to learning to enrich his learning, focusing on 『Daehak』 and 『Junyong』 .

He was taught by Lee Gwan-oui and Kim Jong-jik who were great scholars at that time and had friendship with Kim Gweang-pil, Lee

Sim-won, Nam Hyo-won and Kim Il-son to enrich his learning.

Mr. Jung attempted to realize moral politics based on virtue and manners. So he made every effort to help the people live in comfort and equality, wiping out evil practices. And as he was engaged in educating the junior scholars, pupils gathered to listen to his teaching.

Thus, Mr. Jung tried to realize the politics for the people with virtue and propriety, considering the political culture of the Confucian scholars as a model.

I. 머리말

학문적 터전을 성리학에 두고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며 학문의 실천에 힘썼던 一蠹 鄭汝昌은 조선시대에 태어나 김굉필, 조광조, 이언적, 이황과 더불어 광해군 2년(1610)에 문묘에 배정된 東方五賢의 한 사람이었다. 문묘에 배향된다는 것은 아주 오랜기간의 公論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되기에 그 학문과 덕행이 조선전기를 대표하는 유학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찍부터 학행의 모범이 되고 조선유학의 선구자인 정여창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¹⁾ 그러나 정여창의 학문과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기란 그리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의 중요한 저서들이 戊午史禍에 불타버렸기에 직접 살펴볼 수 있는 사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²⁾

하지만 그의 문집을 비롯한 그에 관한 다른 사람들의 글을 통해 살펴본다면, 그의 학문과 사상이 어떠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지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정여창이 남긴 글뿐만 아니라 그의 언행을 전해주는 타인의 기록을 보다 주목하여 그의 학문과 사상의 전모를 알아보려고 한다.

1) 정여창에 대한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안재순, 「일두 정여창의 수양론」, 『동양철학연구』 38집, 동양철학연구회, 2004.

정우락, 「일두 정여창 문학사상의 양상」, 위와 같음.

최영성, 「일두 정여창의 생애와 문학역정-제가기술을 중심으로」, 위와 같음.

이지경, 「정여창 정치사상의 재평가」, 『동양정치사상사』 3권,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4.

김호성, 「일두 정여창의 정치사상」, 『유교사상연구』 13집, 한국유교학회, 2000.

정병련, 「일두 정여창의 심성론」, 위와 같음.

조남국, 「일두 정여창의 생애와 학행」, 위와 같음.

조남욱, 「일두 정여창의 윤리사상」, 위와 같음.

최일범, 「일두 정여창의 교육정신」, 위와 같음.

황의중, 「일두 정여창의 이기론」, 위와 같음.

2) 정여창은 『庸學註疏』, 『主客問答』, 『進修雜著』의 저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의 부인이 무오사화 때 후환이 두려워 모두 불태워 버렸다고 한다.

정여창에 대한 자료는 선조 때 眉巖 柳希春(1513-1577) 등에게 명하여 『儒先錄』 4권을 엮도록 한 것이 효시이다. 이후, 寒岡 鄭述(1543-1620)가 『文獻公實紀』 1책을 엮음으로써 극히 적은 분량이나마 일두의 유문과 행적이 한 책에 모여지게 되었다. 「일두 정여창의 생애와 학문역정」, 『동양철학연구』 38집, 10쪽 참조

II. 정여창의 스승과 교우

정여창은 문종 즉위년(1450) 경상남도 함양에서 태어나 8년이라는 짧은 관직생활을 하다가 연산군 4년(1498) 戊午史禍 때 김종직의 문하라는 이유로 종성으로 유배를 갔다가 연산군 10년(1504) 세상을 떠났다.

정여창이 살았던 시대는 세조의 왕위찬탈이 있었고, 훈구공신정치에 반대 흐름이 나타나면서 여러 차례의 사화가 일어나게 되는 정치적 격변기였다.

그러므로 정여창의 師友관계는 그의 사회적 위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 된다. 정여창의 스승이 되는 이관의, 김종직, 그리고 그가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살았던 김굉필, 이심원, 남효운, 김일손 등을 통해 정여창의 학문과 사상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정여창의 두 스승

1) 栗亭 李寬義

정여창이 맨 먼저 스승으로 섬기며 배운 사람이 이관의(1409~?)이다. 정여창은 21세의 나이인 성종 2년(1471)부터 2년 정도 수학하였다. 당시 이관의는 경기도 이천에 살고 있었다. 이관의는 명망이 일찍부터 드러나 그의 문하에 들어 배우기를 청하는 사람이 많았다.

세종 20년(1438) 11월 진사 이관의는 생원과 진사 사이의 차서를 문제로 보고, 생원이면 비록 나이가 적더라도 윗자리에 앉게 되므로 이는 長幼有序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라 하며 임금께 그 시정을 진언하였다.³⁾ 이에 세종은 예조의 논의를 거쳐 진사와 생원이 자리를 함께 할 경우에는 나이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조정시켰다고 한다. 이처럼 이관의는 진사의 신분에 있으면서

3) 『세종실록』 20년 11월 12일(壬辰)

도 사회적 질서의식의 확립을 임금께 진언할 정도의 인물이었다. 하지만 대과에는 수차 실패하였다. 그리하여 이관의는 학행으로 천거되어 울봉도察訪에 임명되기도 하였으나, 이를 사양하고 고향에서 학문 연구에 전념하였다.⁴⁾

성종 14년 1월 공조판서 孫舜孝는 경학과 행실이 높은 자로 이관의를 추천하였고 이에 이관의는 어전에서 『대학』과 『중용』을 강론하였다.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갔다. 전 찰방 이관의를 불러서 『대학』과 『중용』을 강하게 하고 시강관 서거정·허종 등에게 명하여 성리의 근원을 논하게 하였다. 또 천지의 도수 일월성신, 세차, 역수의 일을 묻자, 이관의가 물음에 따라서 대답하였는데,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맞지 아니하였다. 이관의는 젊어서 시서에 통달하고 성리학에 정밀하여 한때의 선비가 함께 추복하였으나 번번이 과거에 낙방하여 찰방 벼슬로 마쳤다. 이때 그의 나이 75세였다. 집이 이천에 있었는데 손순효가 경의에 밝다하여 추천한 까닭에 부른 것이다.⁵⁾

물론 이때 막힌 부분도 있었지만, 그는 당대의 최고였다. 성종은 이관의를 벼슬로 붙잡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관의는 스스로 나이가 많아서 일하기 어렵다 하며 사양하였다. 이에 성종은 곡식과 면포 등을 하사하였다고 한다.

정여창은 이관의를 성균관에서 다시 만났고, 이관의가 다시 떠나자, 아쉬운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 바쳤다.

<삼가 율정 이 선생의 시에 차운하다>

학문은 천리와 인도를 궁구하여 당대에 으뜸이었으되

누항에 살면서 남이 알아주기를 구하지 않았네

성균께서 특별히 불러 치도를 물으시고는

산림 속에 은거하고자 하는 뜻을 허락하셨네

4) 조남욱, 『정여창-조선조 실천유학의 선구자』,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3, 102면 참고.

5) 『성종실록』, 14년 1월 15일(戊申)

謹次栗亭李先生韻

學究天人冠一時 而居陋巷不求知

聖君特召問治道 因許山林意所之⁶⁾

위 시는 이관의가 임금 앞에서 강론을 하고 이천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담담하게 표현한 것으로, 정여창의 학문이 ‘天人合一’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관의는 학문과 덕행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만큼 높았고, 주역에 밝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스승에게 2년 동안 수학했다는 사실은 정여창의 학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남겼을 것이다.

2) 佔畢齋 金宗直

정여창이 다음에 찾은 스승은 김종직(1431~1492)이다. 정여창은 성종 8년(1472) 당시 김종직이 함양군수로 내려와 있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었다.

김종직은 어려서부터 부친 金叔滋에게 학문을 배워 우리나라 유학의 정맥을 이었고, 경서를 비롯하여 제자백가서에 박통하였다. 그리하여 단종 1(23세) 진사가 되고 세조 5(29세)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그는 校理, 監察 등의 벼슬을 지내다가 成宗이 즉위하자 經筵官이 되었다. 이때 김종직은 임금에게 강론하면서 端宗 때 죽은 死六臣에 대하여 처음으로 충신이라 함을 진언했다고 한다. 김종직은 세조의 왕위찬탈을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이를 「弔義帝文」이라는 글을 지어 풍자하였다.

김종직은 도덕과 학문이 높았기에 많은 문인들이 모여들었고, 이에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낼 수 있었다.⁷⁾

6) 『일두집』 속집 권1, 「謹次栗亭李先生韻」

7) 지지당 김맹성, 일두 정여창, 한훤당 김굉필, 매계 조위, 추강 남효은, 탁영 김일손, 권오복, 뇌계 유희인, 우졸자 박한주, 재사 이원, 망헌 이주, 이승언, 원개, 이철균, 박승하, 강흔, 이목, 권경유, 초당 강경서, 이수공, 허암 정희량, 노조동, 사숙재 강희맹, 물암 임희재, 목

김종직은 옛 사람들이 공부한 순서로 가르쳐 먼저 『소학』, 『대학』을 읽고 『논어』, 『맹자』에 이르게 하였다고 한다. 이에 정여창은 날마다 가르침을 받들어 공부하였다 한다.

일두 정여창과 한훤당 김굉필은 서로 친구로서 선생의 문하에 나아가 배우기를 청했다. 이에 선생은 옛 사람들이 공부한 순서로 가르치니 먼저 『소학』, 『대학』을 읽고 『논어』 『맹자』에 이르게 하였다. 일두와 한훤당은 날마다 가르침을 받들어 그 강령과 요지를 찾아 알아가고 도의를 연구하였다.⁸⁾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사서 공부의 처음으로 『소학』을 하였다는 것과 정여창과 김굉필의 경우만을 기록하였다는 점인데 이는 그들이 남다른 학구열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뒤, 정여창은 3년 동안 지리산에 들어가 사서오경을 통달하였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 김종직의 문하로 들어가 그에게 가르침을 청했다.

김종직은 정여창에게 이르기를 “喪中에 禮를 읽으라 했으니 책을 보는 것도 무방하며, 또 상중에 병이 나거든 약을 먹으라고 했으니 약으로 먹는 술이야 무슨 상관이겠는가. 다만 충신을 구하자면 효자의 가문에서 구하라 했으니 효의 근본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정여창의 효행이 깊음을 읽고 격려한 것이다.

김종직의 문하에서는 도학·문장·칭답·음률 등 여러 방면으로 제자가 배출되었다. 김종직의 학문이 ‘詞章學’에 머물렀다면 이와 같은 상황은 불가능한 일이라 할 것이다. 김종직은 도학과 문장이 분기하기 이전의 인물로, 유학이 사장학 중심에서 도학으로 발전해 가는 기초를 확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곡 이계맹, 강경, 홍한, 월창 이충, 정승조, 강백진, 강중진, 안락 김훈, 김용석, 조충 홍유손, 용현 이종준, 금남 최부, 남계 표연말, 노계 안우, 허반, 지옹 유순정, 정세린, 풍애 우선언, 안전 신영희, 손효조, 김기손, 목계자 강훈, 주유창, 방유영, 양준 등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8) 『佔畢齋集』 『佔畢齋年譜』 ‘先生四十二歲’條

일찍이 김종직은 경술과 문장이 두 갈래가 아니라고 하면서 ‘道文一致’를 주장하였다. 그래서 경술·도학에 종속되지 않는 문장의 영역과 그 가치·공효를 인정하였다. 하지만 정여창은 스승의 이러한 시문관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는 시를 비롯한 문학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종래의 사장학을 비판하는 차원에서, 정감에 호소하는 시가 治心養性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을 뿐이다.⁹⁾

이처럼 정여창은 김종직의 문인이라는 학맥성과 영남이라는 지역성이 동시에 작용하여 김종직을 통하여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정여창은 40세의 나이에 밀양에 내려온 김종직을 찾아 수학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정여창과 김종직이 평생토록 사제관계를 지속함으로써 배움의 폭을 넓혀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정여창의 교우관계

정여창은 ‘교우하기를 즐겨하지 않아 지기로 허여한 벗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한다. 김종직의 문하에서도 김굉필·김일손·남효온 등이 가장 절친한 관계였다. 김굉필은 평생토록 학문의 반려자였으며, 김일손은 14세 연하이지만 평소 忘年之交를 나누었다. 이 밖에도 유희인·윤효손 등과도 마음을 열고 학문을 강론하기도 했다.¹⁰⁾

1) 寒暄堂 金宏弼

김굉필(1454~1054)은 소학을 주축으로 한 수기의 원리를 본격적으로 실천

9) 최영성, 「일두 정여창의 생애와 문학역정」, 『동양철학연구』 38집, 동양철학연구회, 2004, 16면 참조.

10) 金埴, 『海東名臣傳』 권1, 「鄭汝昌」
최영성, 「일두 정여창의 생애와 학문역정」, 『동양철학연구』 38집, 동양철학연구회, 2004, 14쪽 참조.

한 인물이다.

김굉필은 주로 선조가 사셨던 현풍과 처가인 합천 야로현 및 처외가인 가천지역을 내왕하면서 정여창을 비롯한 영남의 여러 선비들과 만났고 또 점필재의 같은 문인으로서 정분을 깊이 나누게 되었다.

김굉필은 성종 11년(1480) 초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입학했다. 이때 김굉필은 유학은 제가치구평천하의 도이며 불교는 일신의 청정적멸만을 위하는 것이라고 하여, 척불과 유교진흥에 관한 긴 상소를 올렸다.

또한 김굉필은 성종 17년(1486) 당시 이조참판으로 있던 스승 김종직이 국사에 대해 별다른 건의를 하지 않자 이에 풍자의 시를 올림으로써 그를 비판하였다.

도란 겨울에 갓옷을 입고 여름에는 얼음을 마시는 것이니
날이 개이면 나다니, 장마 지면 멈추는 것이 어찌 온전하다 하겠습니까
난초가 세속을 따라 마침내 변하고 보면
소는 밭을 갈고 말은 사람이 타는 것이라 한들 누가 믿겠습니까
道在冬裘夏飲冰 霄行潦止豈全能
蘭如從俗終當變 誰信牛耕馬可乘

위 내용은 김굉필이 김종직에게 정치의 시비를 논하는 상소문 올리는 일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풍자하여 올린 시이다. 이에 김종직은 김굉필의 직언에 자신의 입장을 답하였다.

분수밖의 벼슬이 높은 지위에 이르렀건만
임금을 바르게 하고 세속을 구제하는 일을 어찌 내가 할 수 있겠는가
후배들이 못났다고 조롱하는 것 맡겨두겠지만
세리에 구구하게 편승하고 싶지는 않다
分外官聯到伐冰 匡君掾俗我何能
從教後輩嘲迂拙 勢利區區不足乘

이처럼 김종직은 제자의 직언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했으나 지조를 굽히기면서까지 時俗에 아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함을 답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두 사람의 사제관계는 벌어지게 되었다고 한다.¹¹⁾

김굉필은 1494년 경상도관찰사 이극균에 의해 유일로 천거되어 주부·감찰·형조좌랑 등을 역임하였다. 그러나 1498년 무오사화 때 김종직의 문인이라는 이유로 평안도 희천에 유배되었다. 그곳에서는 부친의 임지를 따라온 조광조를 만나 학문을 전수하였다. 2년 뒤 유배지가 순천으로 옮겨졌다가 1504년 갑자사화 때 결국 사약을 받고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중종반정 이후 신원되어 도승지가 추증되고, 1517년 정광필 등에 의해 우의정에 추증되었다. 이처럼 김굉필의 관직생활 기간은 극히 짧았지만 평생토록 후진교육에 힘썼으며 옛 성인을 표준으로 삼아 학문연구에만 몰두하였다. 그리하여 정여창과 더불어 ‘도학의 선구자’라 불리게 된 것이다.

김굉필은 정여창보다 네 살 아래였다. 그들은 서로 자주 만나며 학문과 세상을 논하였고 서로의 예민한 부분까지 염려하여 충고하였다.

함양의 정일두 여창과 뜻이 같고 도가 합하여 특히 서로 벗하여 지내며 매양 만나 더불어 도의를 講하고 닦으며 古今을 의논하여 혹 새벽에 이르더라. 일두가 조정에 있을 때에 공무에서 물러나오면 반드시 말을 보내서 한훤당을 집에 오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갔었다. 일두가 안음의 현감으로 있을 때에 한훤당 이 방문한 바 있는데, 일두가 관청에서 쓰고자 금술잔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 책하기를 “당신이 이러한 무익한 일을 할 줄 몰랐다. 후에 반드시 이 때문에 사람을 그르치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 후 그 관직에 온 사람이 결국 장물죄를 문책되었다.¹²⁾

그들은 뜻이 같고 도가 합하여 하나의 몸이나 다를 바 없는 절친한 관계를

11) 金夏錫 찬, 『景賢續錄』 상권 「연보」

12) 『景賢錄』 상권, 「事實」

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김굉필은 정여창을 예민하게 관찰하여 문제될 부분에 대해서는 충고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 수 있다. 한편 정여창도 김굉필의 명성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이를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이 모이는 것은 어떠한 세력을 형성하려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니 자제할 것을 당부한 적이 있다.

김굉필은 「소학」으로 몸을 규율하고 옛 성인으로 준칙을 삼았다. 그리고 후학을 모아 쇠소의 예절 육예의 학문을 가르치니 배우려는 자들이 앞뒤에 가득하여 비방이 일어날 지경이었다. 이에 정여창은 그것을 그치도록 권했다. 그런데 그는 듣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승려 陸行이 불교를 가르침에 공부하려는 제자가 천여명이나 되었다. 그 친구가 말리면서 ‘화를 입을까 두렵다’고 하였지만, 육행은 말하기를 ‘먼저 저 안 사람이 뒤에 아는 사람을 일깨우며 먼저 깨달은 사람이 뒤에 깨닫는 사람을 일깨우는 것이라. 내가 아는 것을 남에게 알릴뿐이요, 화나 복을 입는 것은 하늘에 있으니 내가 상관할 것이 무엇이라’고 하였으니, 육행은 비록 승려로서 그 취할 바 없으나 그 말만은 지극히 공정하다라고 하였다.”¹³⁾

위 내용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정여창의 충고에 김굉필은 교육활동을 중단할 수 없음을 말하였다. 이는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인한 자세를 나타낸 것이다. 서로간의 애정 어린 충고가 비록 적극적으로 수용되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이를 계기로 자기관리에 대한 깊이를 더해가게 되었을 것이다.

이들은 서로간의 만남을 일상화하여 상대가 올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것이 여의치 못하면 자기 스스로 가서 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서울에서의 일상화된 만남은 지방생활에까지 이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삶의 자세와 태도에 있어서도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다. 정여창은

13) 「秋江集」 권7, 「冷話」

좀 소극적이고 보수적, 온건한 편이라면, 김굉필은 적극적이며, 진취적이고, 과격한 편에 속했다. 대표적으로 김굉필은 강경유학파에 속하여 배불사상이 누구보다 철저했지만, 정여창은 유학을 기본으로 하면서 다른 종교나 학문에 대하여 비방하지 않았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김종직과의 사제관계에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두 사람은 둘도 없는 친구이자 같은 길을 걷는 학문의 동지로 실천유학의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보여주었다.

2) 醒狂 李深源

태종의 현손이고 효령대군의 증손으로 柞城君 偉의 아들인 이심원(1454~1504)은 김종직의 제자로서 정여창과는 동문으로 교제하였다. 이심원은 성리학과 시문에 밝아 25세에 明善大夫 行朱溪副正이라는 종친직에 임명되었다.

34세에는 宗親科試에서 경전과 사서를 강독함에 제1등으로 뽑혀 正義大夫(종이품)에 올랐다.

이심원은 수령의 탐학과 향리의 간교로 수탈하는 심각성을 고발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훈구세력에 대한 비판도 주저하지 않았다. 여러 번 임금께 글을 올리며 성군정치 구현에 적극성을 보였던 것이다.

특히 이심원은 자신이 알고 있는 전국의 어진 선비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을 등용할 것을 강조하여 성종에게 글을 올렸다.

제가 듣건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서 반드시 숨겨진 현인이 없을 것이다. 만일 있다면 어찌 알지 못하겠는가?”라고 하나, 저는 다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傳에 이르기를 “열 집의 고을에도 반드시 충신이 있다”고 하였는데 우리나라만이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직 좌우에서 구하여 쓰려는 데에 진실로 힘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듣고 보아 기억하는 자도 오히려 두서넛이 있으니, 함양의 鄭汝昌, 태인의

丁克仁, 은진의 姜應貞 등 이들은 모두 성현의 부류입니다. 제가 듣고 본 바라도 이러한데 하물며 수많은 사람의 듣고 보는 것이겠습니까?¹⁴⁾

이심원은 정여창을 정극인, 강응정과 같이 숨어있는 현자로 거론한 것이다. 그는 성종을 친견하는 자리에서도 재주와 덕을 모두 갖춘 자를 등용함이 긴요한 것임을 건의하였다.

저는 옛 신하를 모두 쓸 수 없다함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재주와 덕이 겸비된 자는 쓰고 어질지 못한 자는 쓰지 말자는 것입니다. 또한 영웅호걸로 숨어 있는 자가 아주 많으니 비록 옛 신하는 아닐지라도 어찌 쓸 만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이에 성종은 이는 작은 일이 아니므로 내가 마땅히 참작하여 헤아리겠다고 하였다.¹⁵⁾

이때 도승지 任士洪은 이심원이 다만 옛 글을 읽었을 뿐이고 시의에 맞추어 조처함을 알지 못하는 진실로 어리석고 망령된 사람이라 하며 공격하였다. 그리고 정극인은 문종 조에 逸民으로 천거되어 정언에 임명되었지만 다만 뜻이 慷慨하여 남과 조금 다를 뿐이고 정여창과 강응정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한다며 이심원의 의견에 반대하였다.

임사홍은 이심원의 조부인 寶城君의 사위였으며 이심원의 고모부가 되었다. 이로 이심원은 조부에게 잘못 보여서 長湍, 伊川 등지로 유배생활을 겪기도 하였다. 이는 흔히 권력투쟁에서 반대편을 제거할 때 군주 일인의 통치권에 방해하였다는 구실로 봉당을 내세운 전형적 수법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후에 성종은 이심원의 건의가 진실임을 알고 임사홍을 귀양 보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임사홍은 연산군의 폭정 때에 다시 돌아왔고, 이심원은 甲子士禍로 인해 51세의 나이로 두 아들과 함께 피살되었다. 이심원은 중종 때 조광조 등의 건의로 신원되고 홍록대부주계군으로 증직되었다.

14) 『성종실록』 9년 4월 8일

15) 『성종실록』 9년 4월 9일

이심원은 정여창을 숨어있는 현자라 높이 평가할 만큼 정여창을 존경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남효온의 『師友名行錄』에도 기록되어 있다.

정여창은 지리산에서 3년 동안 나오지 않고 오경을 닦아 그 깊은 진리를 다 터득하여 體와 用의 근원은 같으나 갈린 끝이 다르고, 선과 악이라도 본성은 같고 기질이 다른 것을 알았고, 유와 불은 도가 같다고 하여도 자취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성리학을 이심원이 존경하였다.¹⁶⁾

이와 같이 이심원은 정여창이 성리학에 조예가 깊음을 알고 존경하였던 것이다.

3) 秋江 南孝溫

남효온(1454~1492)은 생육신의 한 사람으로, 조선 개국공신 남재의 5대손으로 성품이 호방하고 강직하며 지조와 절개가 있었다. 남효온은 어려서 생육신의 충정을 보고 의분을 새기었으며 김시습을 사범으로 삼아 세속에 패념치 않았다.

남효온은 나이 25세 되던 해인 성종 9년(1478)에 단종 생모의 능 즉, 소릉을 복위할 것을 건의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하지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는 과거를 포기하고 유랑생활을 하였다. 남효온은 『六臣傳』이라고 하는 死六臣에 대한 傳記를 세상에 내놓으면서 불의에 대해 항거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널리 공부하여 통하지 않는 것이 없었는데 성종조에 상소하여 일을 말한 뒤로는 거짓 미친 모습으로 벼슬하지 않고 스스로 秋江居士라 불렀다. 문장을 공부하여 시가 고고하였고 당나라 문인들의 기풍이 있었다.¹⁷⁾

16) 南孝溫, 『師友名行錄』

이처럼 남효온은 시대가 그를 허락하지 않았지만 정의롭고 시문에 뛰어난 문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효온은 39세의 나이로 짧은 생을 마쳤다. 1504년 갑자사화 때 남효온은 김종직의 문인이었다는 점과 소릉 복위를 주청했다는 이유로 부관참시 당했고 그의 아들 世忠도 처형되었다. 하지만 중종 8년 소릉이 복위되면서 남효온은 신원되어 좌승지에 증직되고, 정조 때에는 이조판서에 증직되었으며 문정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이러한 남효온과 정여창의 관계는 당시 도승지로 사림에 반대적인 입장에 있었던 권신 임사홍이 남효온의 상소에 대해 반박하여 말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상소는 이심원의 상소와 서로 같습니다. 심원이 경연과 강응정을 천거하였는데 남효온도 경연을 추천하였습니다. 제가 삼가 듣기에는 남효온의 무리에는 강응정·정여창·박연 등이 있는데, 따로 무리를 지어 강응정을 ‘夫子’라 높이고 박연을 顏淵이라 부르며 항상 『소학』의 도리를 행한다고 이르며 異論을 숭상하니, 이는 실로 폐풍입니다.¹⁷⁾

이와 같이 임사홍의 발언에서는 정여창이 거명되고 있다. 하지만 임사홍은 이심원의 상소문을 반박하면서 분명히 정여창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임사홍은 임금에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 진언을 하였던 것이다.

또한 위의 글에서는 정여창과 남효온이 같은 역사의식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심에서는 『소학』이 있어 서로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늘 같은 의견을 나누지는 않았다.

17) 『연산군일기』 10년 5월 30일(己未)

18) 『성종실록』, 9년 4월 15일(丙午)

정백옥은 周·程·張·朱에 대해 본 바가 있고 오경에 정통하면서도 유독 시를 전공하는 선비는 취하지 않았다. “시란 정성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어찌 자잘하게 억지로 공부한단 말인가”라고 하였다. 그의 생각은, 비록 시를 짓지 않더라도 덕이 갖추어지고 경서에 능통하면 무엇이 병통일 것이냐는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이러한 생각은 부유들의 견해와 다름이 없다.(· · ·) 백옥은 시를 異端으로 여겼다. 그렇다면 周子와 邵子가 이단이란 말인가, 회암이 이단이란 말인가. 점필재 김선생이 말하기를 “시는 성정을 陶冶한다”고 하였으니, 나는 師說을 따른다¹⁹⁾

이는 정여창이 문장을 가볍게 취하는 것에 대한 남효온의 비판이었다. 정여창은 남효온의 거침없는 행실에 우려하여 그칠 것을 충고하였다. 하지만 남효온은 그에 별로 개의치 않는 태도였다.

남추장은 성품이 강개하여 매번 시사를 분통히 여겨 산에 올라 통곡하고 돌아와서는 말을 위대롭게 하고 논의를 과격히 하면서 비록 꺼림에 저촉되어도 개의치 않았다. 이에 한훤당과 정일두가 경계하여 그치도록 하였다.²⁰⁾

정여창은 남효온의 과격한 언행을 경계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서로의 문제점에 대해 충고할 만큼 관심이 높았고 친분이 두터웠다. 따라서 남효온은 자신이 본 정여창에 대해 많은 기록들을 남길 수 있었다.²¹⁾

성종 11년(1480) 임금이 성균관에 하교하여 경전에 밝고 행실이 수양된 유생을 구함에 성균관에서는 정여창을 제1인으로 삼고 지판사 徐居正이

19) 『추강집』 권7, 「冷話」

20) 임보신, 『丙辰丁巳錄』

21) 『秋江集』 권7, 『師友名行錄』

그를 추천하여 경전을 강론하려 하였는데 그가 물러났고 그 3년 후 진사가 되었다. 그의 아버지 六乙이 이시애의 난에 순국하니 이 때 그는 나이가 어렸는데도 상례에 빠짐이 없었고 모친의 상에서도 제물 올림이나 죽먹는 것을 朱子家禮대로 하였다. 성종 21년(1490) 참의 尹兢이 그 효성과 학문이 사람에게 견줄 자 없다고 추천하니 임금은 특별히 소격서 참봉을 삼았다. 그러나 그는 글을 올려 사직을 청했다. 임금이 그를 포상하는 교지를 내리니 그 이름이 더욱 주목되었다.²²⁾

4) 濯纓 金駟孫

김일손(1464~1498)은 성품이 강직하고 도량이 넓었으며 문장에 뛰어나 23세에 진사를 거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다. 그러나 연산군 4년(1498) 『성종실록』을 편찬할 때에 점필재가 쓴 「조의제문」을 사초에 넣은 것이 화근이 되어 무오사화 때 그는 처형당했다. 하지만 중종반정 후에 신원되어 도승지에 증직되었다.

정여창과 김일손이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성종 11년(1480) 김굉필 등과 함께 김종직 문하에 있을 때였다. 김일손은 정여창보다 14세 연하였지만 두 사람은 지리산을 함께 유람하여 학문을 논할 정도로 친분이 깊었다. 이때 지은 시가 바로 ‘遊頭流山’이다.

개버들 하늘하늘 부드럽게 흔들리고
 사월이라 화개땅 보리 이미 익었더라
 두류산 천만봉을 두루 다 구경하고
 조각배를 흔들려 큰강 따라가네
 風浦泛泛弄輕柔 四月花開麥已秋
 看盡頭流千萬疊 孤舟又下大江流²³⁾

22) 『秋江集』 권7, ‘師友名行錄’

23) 『탁영집』 續集上

이는 가슴속이 시원하고 깨끗하며 한 점의 俗氣가 없어, 정여창의 사람됨과 기상을 엿보게 한다는 평이 있다.²⁴⁾ 이 후 이들은 진주로 가서 승정원 주서를 사임하고 내려와 있던 강혼을 만나 함께 김종직을 찾아 밀양까지 갔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머물면서 여러 경전을 읽고 토론하였다. 이러한 친분은 늦게 과거에 오른 정여창에 대하여 김일손은 자신의 관직을 사양하며 천거하는 상소문을 올리게 된다.

엿드려 아뢰나이다. 새로이 과거에 급제한 정여창은 道가 하늘과 사람에 통하고 학문이 體와 用을 갖추었으며, 성정이 고요하고 기질은 단정하며 몸가짐은 깨끗하고 고난에도 안주하며 사물을 어질게 대합니다. 그 효성과 우애는 충성과 신의로서는 풍속을 바르게 할 수 있고, 돈후하고 겸양함으로서는 백성들을 감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학문의 연원은 넓고 논의의 지평은 바르며 경전에 근거함이 있으니 고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은 정밀하고 밝으며 문장은 넓고 깊으며 고품이 있으니 글 짓는 일을 맡길 수 있습니다. 세밀한 역사를 기억해 말하는 재주가 있으니 그것은 여가의 일이며 말단의 재주일 뿐입니다. 그 명성을 영화롭게 실행하심은 유림을 빛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나이를 보더라도 그는 모두저에 앞섭니다.²⁵⁾

이처럼 김일손은 자기 자신의 관직을 대신하여 정여창의 천거를 적극 요청할 만큼 그를 존경했고 따랐음을 알 수 있다. 김일손에게 비친 정여창의 모습은 일반적인 유학자가 결코 아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것 외에도 정여창의 대인관계는 『文獻公實記』과 일두집에 실려 있는 『師友門人錄』을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도 이를

24) 임보신, ‘丙辰丁巳錄’

25) 『濯纓集 續集』上

바탕으로 정여창과 친분이 두터웠던 몇 명의 師友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그의 생애와 학문에 끼쳤던 영향들을 알아보고자 했다. 정여창이 살았던 그 시대의 인물들은 인간 도리의 파악과 그 실천을 중시하는 ‘도학’의 학풍을 지닌 자들로 정계에 진출해서는 도학적인 의리정신을 드높여 사림문화를 선도하고 있었다.

Ⅲ. 정여창의 학문과 사상

1. 정여창의 성리설

정여창은 학문적 터전을 성리학에 두고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며 행동한 학자이다. 특히 論語, 中庸, 周易, 大學에 힘을 기울였기에 타인의 추종을 불러오는 학문적 업적을 쌓았다. 정여창은 공맹 이래 원시유학에 더하여 북송 이래 성리학을 수용하면서 천지의 생성과 운동과 인간의 도덕과 실천의 문제를 고민하였다. 그리하여 『용학주소』, 『주객문답』, 『진수잡저』 등을 저술하였다. 하지만 이는 무오사화 때 후환을 두려워한 부인이 모두 불 속에 던져버렸다. 현재 전하는 학술 논문으로는 「이기설」, 「선악천리론」, 「입지론」 3편이 있는데 이는 정여창의 성리학에 대한 수준과 학문 경향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²⁶⁾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기설」, 「선악천리론」, 「입지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이기설

12세기에 흥기한 중국 성리학의 특징은 이 세계의 모든 것을 ‘리’와 ‘기’의 양면으로 분석하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이기론은 만유 해석의 논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심성의 해석을 거쳐 수양론의 기저에까지 이르는 것이었다. 따라서 중국의 성리학부터 조선의 성리학은 물론 정여창의 이기설 역시 그러한 시대성을 전제하고 있다.

정여창은 하나의 원리와 갖가지 형상이 혼용하여 천지가 있고 사물이 생성되고

26) 고종 17년(1880) 무렵에 경상도 현풍에 사는 士人 郭孝根의 집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 1919년 『일두집』 속집을 간행하면서 실은 것이다. 이것은 일두의 글인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기에 『속집』의 편집자도 “비록 정확한 증거는 얻지 못했지만 본초에 ‘일두’라는 선생의 호가 실려있어 감히 민몰시키지 않고, 여기에 붙여두어 후일의 고람을 기다린다”고 하였다. 현재 학계에서는 일두가 남긴 글로 인정하고 있다. 『일두 정여창의 생애와 문학역정』, 『동양철학연구』 38집, 동양철학연구회, 2004, 40쪽 참조.

운동한다고 보았다. 리와 기, 태극과 음양으로 풀어 ‘천지간에 리가 있고 기가 있다’고 하고 또한 ‘태극이 음양을 낳았으니 음양이 하나의 태극이다’고 하였다. 그래서 리와 기를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다’고 하고 태극과 음양도 ‘하나라고도 할 수 없고 둘이라고도 할 수 없다’ 하였다.

무릇 기 없는 리가 없고 리 없는 기가 없으니 리가 있는 곳에 기가 모이고 기가 움직이는 바에 리가 유행하니 피가의 구별이 없는 듯하다. 그러나 리는 텅 비어 맑고 깊으며 지극히 선하며 영위가 없는 것이며 기는 맑고 흐림과 깨끗함과 찌꺼기로 운행하니 서로 구별이 있는 듯하다²⁷⁾

즉, 리와 기는 서로 떨어질 수 없고 서로 섞일 수 없는 ‘不相離不相雜’의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관계를 정여창은 ‘理氣의 妙’라 하였다. 이는 어디까지나 선후가 있고 차서가 있었다. 그래서 리가 먼저이고 기가 다음이며, 리가 위고 기가 아래였다.

또한 정여창은 이에 더 나아가 규범과 실상은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점을 이와 기가 하나가 되는 실체와 둘이 되는 의의로 나누면서 이렇게 적었다.

배우는 사람은 모름지기 이와 기가 둘이면서도 하나가 되는 실상과 또한 하나이면서 둘이 되는 뜻을 알아야 극기복례하여 도심이 한 몸을 주재하며 인심은 천명을 따르게 할 수 있다.²⁸⁾

이는 인간의 도리(리)와 행동(기)은 하나로 움직여야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도리와 행동이 분명 다르다는 뜻을 알아야 행동이 마음대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비로소 욕망을 버리고 바른 마음과 제 몸을 다스리는 삶인 극기복례를 실현하여 천명에 다가설 수 있다는 것이다.

27) 『일두집 속집』 권1, 「이기설」

28) 『일두집 속집』 권1, 「이기설」

이상의 내용은 주자의 견해를 따르면서도 정여창은 리와 기 각각의 실상과 그 양자간의 관계성을 실재론적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인격 수양의 측면에서 도로서의 리의 세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선악천리론

성리학에서의 이기론은 천지만물의 세계에 대한 근본적 이해의 요구의식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 다음의 관심사는 성리학적 사상전개의 기본입장을 주목하여 그것은 곧 사람 자체의 심성과 선악 문제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여창 역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즉 존재해석으로서의 이기론을 말하되 반드시 선악의 문제에 연계시켜 인간해석의 본질과 수양의 방향을 거론하는 ‘선악천리론’으로 정리하였다.

정여창의 선악천리론은 정명도의 “천하의 선과 악은 모두 천리이다”라는 말에 의문을 갖고 풀어가기 시작했다.

정여창에 의하면 인간의 본성은 텅 비어 맑고 깊으며 조짐도 없는 리를 받았으니 어떠한 뜻이나 느낌, 헤어림이나, 꺾이 없었을 것이니 지극히 순수하고 착한 것이다. 그런데 기질이 되면 달라진다. 마치 동정의 조짐이 있는 순간부터 기운은 뭉침이 있고 드러남이 있고 하고자 함이 있으면서 결국 맑음과 흐림이 있고 도타움과 얽음, 깨끗함과 찌꺼기가 공존하게 되듯이 사람의 본성이란 어떠한 기미가 있으면 바로 어긋남과 바름 착함과 악함으로 갈리게 된다는 것이다.

氣가 발동하여 선과 악의 다름이 있겠지만 그 근본을 살피면 理에서 나오지 않는 바가 없으니 진실로 악은 理의 본연이 아님을 알겠다. 29)

즉, 선과 악으로 갈리는 기질이라도 본래 착한 하나의 이성에서 나오는 것이니 악은 이성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착한 본성을 이어갈 수 있기 때

29) 『일두집 속집』 권1, 「선악천리론」

문에 性善이라는 것으로, 착한 본성을 믿지 말고 일상의 실천을 통하여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명도의 발언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주목하여 시작된 정여창의 선악천리론에서는 그와 관련한 종래의 발언들을 두루 거론하면서 그가 견지하고 있던 ‘理氣 不離’의 논리에 따라 인간 본성과 선악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해명하였다. 여기서 특히 중시된 관점은 그 불리의 원칙과 함께 ‘리’란 그 기의 소재로 오염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이다.

따라서 ‘性’의 차원에 있어서는 물론, 기와 떨어져 있을 수 없는 ‘리’ 또는 ‘천리’에는 선만이 아닌 악까지도 말 할 수 있다는 데에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³⁰⁾

3) 입지론

정여창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요구되는 것은 공부에의 적극성이다. 그러므로 정여창은 공부함에 있어서의 정성어린 적극적인 의지를 높이 여겼다.

지리산에 들어가 3년간 나오지 않았다. 오경을 밝혀 그 뜻을 깊이 연구하여 체와 용의 근원은 같으나 나뉘이 다름을 알았고, 선악의 본성은 같으나 기가 다름을 알았으며, 유교와 불교의 도는 같으나 그 자취가 차이남을 알았다. 성리의 학문에 있어서는 모두가 그를 공경하였다.³¹⁾

이러한 적극적인 의지는 마침내 입지론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현의 세계를 지향하는 학자들에게는 반드시 견지해야 할 기본태도로서 정여창의 입지론도 이러한 의의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여창의 입지론도 학자로서의 정도와 그 어려움을 실제적으로 확인시키면서 그 공력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하였다. 입지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30) 조남욱, 『정여창-조선조 실천유학의 선구자』,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3, 78~85쪽 참고.

31) 『秋江集』 권7, ‘師友名行錄’

우선, 배움의 대상을 성인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학자로서의 소명의식과 마음자세는 성인을 배우고 그 배움을 이루게 한다는 성인 중심적 학습태도에 있었다.

다음으로 정여창은 뜻을 세움에는 강인성이 겸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삶의 현실에서는 항상 감성적 욕구의 문제가 작용하기 마련인데 그 점이 제대로 극복되지 못하면 입지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정여창은 물욕의 극복을 강조하여 물질에 감동되어 절제함이 없으면 사람은 곧 그 물질로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고로 물질적 욕구와 생활의 안일함을 벗어날 수 있을 때에 입지의 실천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여창은 항상 옴과 착함의 도덕적 가치가 지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저 강인함 그 자체만을 중시한다면 그것은 곧 '강자의 강' 일뿐 '군자의 강'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고로 군자의 세계에서는 옴과 착함의 도덕적 가치가 전제되고 있었으니 그러한 측면을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며, 또 그 실천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배움이란 성인을 배움이요, 뜻은 배움을 이루는데 두어야 하니, 모름지기 세우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뜻인데 이 또한 강하고 굳세게 하지 않으며 물욕에 흔들려 빼앗기고 못 사람의 입질에 뜻을 옮기고 바꾸게 된다.³²⁾

이와 같이 정여창의 입지론은 밝은 착함을 찾는 공부에 더욱 매진하여야 하고 이 때 비로소 굳건해야 할 때 버틸 수 있는 '군자의 강함'을 갖출 수 있다는 것으로 내 몸의 밝은 덕을 살리는 공부가 참된 것이라는 의미이다.

32) 『일두집 속집』 권1, 「입지론」

2. 정여창의 교육사상

조선시대 도학의 선구자로 일컬어지고 있는 정여창은 인간의 이성을 매우 긍정적으로 신봉했던 학자로, 학문을 실천하는데 힘써왔다. 그러기에 정여창은 가정에 있어서는 웃어른인 부모를 공경하여 孝를 모든 덕행과 인격의 기초로 보았다.

그는 효도를 충실이 지켜짐으로써 사회질서 또한 유지되는 것이라고 여겼다. 그리하여 그는 지식보다는 도덕적 인간의 완성인 효제충신을 실천할 수 있는 인격 배양함에 그 목표를 두었다.

이 당시의 실천정신은 주로 소학 교육과 가례의 실행에 바탕을 두고 있다. 『소학』은 주자가 편집한 것으로서 중국 역대의 경사자집에서 추출하여 灑掃, 應對, 進退之節을 위시하여 愛親, 敬長, 忠君, 隆師, 親友之道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실천의 내용을 담고 있기에 실천윤리의 교과서로는 가장 이상적인 것이었다.

정여창의 교육사상은 첫째, 학습자에 대한 일률적인 진행방법을 지양하고 학습자의 개인차와 능력에 따라 범위를 정해주는 개별지도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교육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했다. 이는 공자가 그 제자들을 가르칠 때 성품에 합당한 교육방침을 채택하여 한 것처럼 그도 충분히 감지하고 그것을 실천했던 것이다.

이러한 그의 방법은 일률적인 학습지도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대의 교육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둘째, 그는 소학에서 시작하여 형이상학적인 근본문제로 올라가는 하학상달, 즉 귀납적인 방법을 철저하게 고수했다는 것이다.

이는 그 자신이 학문에 대한 이해가 고상한 이론이나 백과사전식의 지식보다는 일상생활의 몸가짐과 실천을 더욱 가치있는 것으로 인식한데서 기인한 것이다. 고로 그는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실천적인 것에서 논리적인 것으로 그 단계를 높혀갔던 것이다.

셋째, 정여창은 남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스스로 배우고 같고 닦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기에 그는 배우는 일에 싫증내는 일이 없고 가르치는 일에 지칠 줄

모르는 교육자의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에 멀고 가까운 곳에서 제자들이 모여들었다.

따라서 정여창은 학문이란 일상생활의 이치를 밝히지 않고 우뚝하게 앉아서 중일 책만 읽는다고 하면 無用之學이라 하였다. 즉 오늘에 당연한 이치대로 행하고, 내일에 당연한 이치대로 행하여 그날그날의 당연한 이치대로 행하지 않으면 교육은 아무 뜻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道란 아들이 되어서는 마땅히 효도하고, 신하가 되어서는 마땅히 충성할 것이며, 나머지도 모두 이에 따라서 행하여 가므로 교육은 일상생활에서 발견하여 예절을 배우고 궁리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³³⁾

이처럼 정여창의 교육사상은 그의 삶에서 끊임없이 학습하고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고 나아가 타인을 교화함으로써 보다 진보된 사회를 이룩하려 하였다. 그는 유배생활 중에도 끊임없이 교육에 힘써 지방의 인재를 양성하는 등 큰 결과를 남기도 했다. 이러한 정여창의 삶은 당시는 물론 후세의 귀감이 되어 사림의 전통을 형성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삼가 상고하건대, 정여창은 일찍이 독서를 좋아하여 마음을 가다듬고, 분발, 五經의 歸趣를 궁구하고 聖學의 體用을 탐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학문을 하되 伊洛(정주학)을 표본으로 삼았고 마음가짐은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으로 주를 삼았습니다. 또 김굉필과 뜻과 학문을 같이하여 일생동안 연구한 것은 모두가 性理의 깊은 뜻이요 날을 새며 강론한 것은 모두가 道學의 묘리였으니, 그가 斯文(성리학)을 돕고 후학을 倡起시킨 공이 어찌 전현만 못한 것이 있겠습니까³⁴⁾

이는 정여창에 대한 후기 성균관 학생들의 평가로, 정여창의 삶이 끊임없는 학문 탐구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숙종 12년(1686)에 마침내 종성에 그의 사액서원이 설립되었고, 김기홍 등이 종성에서의 정여창의 교화를 기리는 의미에서 숙종에게 사액을 요청하여 「종산서원사액제문」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33) 최일범, 「일두 정여창의 교육정신」, 『유교사상연구』 13집, 한국유교학회, 2000.

34) 『宣祖實錄』 9년 4월 24일(丁亥); 성균관 태학생들이 五賢 文廟從祀 上疏文.

3. 정여창의 정치사상

조선은 건국 후 세조, 성종에 이르는 동안 체제가 정비되고 사림정치가 완
착하게 되지만 세조의 찬탈과 연계된 왕위계승문제라는 정치과정에서의 대립
과 갈등에 의해서 직접 참여하는 훈구공신과 이를 올바르게 견제하려는 사림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여창은 안음현감으로 부임하여 내려와 덕치주의로
왕도정치를 바르게 구현해 보고자 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의 모든 폐단을
불식하고 백성들이 편하고 사람답게 사는 정치를 펴나가는 데 힘썼다.³⁵⁾

정여창의 정치사상은 첫째, 행정관리 즉 사림에서 투입된 관직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백성을 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관
리의 덕목은 청렴 검소 그리고 공정으로, 관리가 청렴하고 검소하며 공평무
사하여 법도에 어긋나지 않고 백성은 국법에 순응하고 관리의 행정력에 복종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금은 정의에 의해 다스려 만백성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며,
관리는 임금을 대신하여 은혜와 너그러움을 가지고 봉사하는 대리인이므로
신념이 투철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여창이 안음현감으로 부임하여 채 1
년도 되지 않았는데 정사가 깨끗해졌고, 백성들이 기뻐했으며 경내가 서로
조심하여 속임이 없었다고 한다.

둘째, 백성의 조세부담을 줄임으로서 편안한 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관리들은 과세의 불공평과 과대한 부역으로 백성을
괴롭혀 왔다. 특히 지방의 관원 수령들이 貢稅와 賦役을 가중하게 하여 백성
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함을 정여창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정여창은 조세
와 부역을 줄이는 데 힘썼다. 그는 편의조목을 만들어서 시행케 함으로써 관
원들이 함부로 백성들의 재물을 넘보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는 백성들

35) 정재경, 「정여창연구」, 집문당, 1988, 335~341쪽 참고

은 환영하였으나 관리들은 두려워하였다.

셋째, 법을 시행함에 있어 처벌을 위주로 하지 않고 교화시키는 데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형벌을 가하여도 백성이 이를 원망하지 않으며 주위사람들이 이를 옹기 받아들이 수 있어야 한다고 여겼다.

또한 그는 항상 관아를 개방해 놓고 호소하러 오는 백성들이 부모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친숙하게 드나들도록 했다. 왜냐하면 서로 믿고 사모하는 것처럼 下情이 통달하여 막힘이 없어야 바른 정치가 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넷째, 德治와 禮治에 기반을 두고 정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인재양성에 뜻을 두고 고을 안에서 총명한 자제들을 선발하여 친히 교훈하고 날마다 과정을 정하여 강독을 하였다. 이러한 소문은 인근지방의 학생들까지도 모여들게 하였다. 이와 더불어 그는 상부상조의 기풍을 진작시켜 서로 믿고 도우며 사랑하도록 힘썼다. 그리하여 그는 주민들이 상부상조하도록 권장하였고, 농사를 지움에 있어서도 두레, 품앗이 등으로 협동을 하도록 했으며, 마을마다 喪布契를 권장하여, 喪事에는 마을 사람들이 서로 돕는 풍속을 진작시켰다.

특히 정여창은 주민들에게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 관에서 봄·가을로 養孝禮를 거행했다. 이때 내외청에서 함께 잔치를 베풀어 내청에서는 부인이 직접 노인들을 대접하게 했으며, 외청에서는 정여창 자신이 손수 노인들을 대접하면서 지방의 실정을 듣는 기회로 활용했다.

이 외에도 그는 지역 주민 가운데 자녀가 있지만 재물이 없어 오래도록 혼인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관에서 후하게 도와주어 혼기를 놓치는 일이 없게 하였다. 그러므로 고을 백성들의 그를 칭송하였고,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고을 사람들은 鄉詞堂을 세우고 송덕비를 세워 그의 善德을 추모했다고 한다.

이처럼 정여창은 사림정치문화를 거울로 삼으면서 미래의 정치에 더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가졌고, 이상적인 사림정치체제의 건설을 위해서 지배자의 절

대적 권위를 인정하는 한편 그것은 천도의 리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덕치와 예치를 통한 道學政治를 실현코자 한 것이다.³⁶⁾

36) 김호성, 「일두 정여창의 정치사상」, 『유교사상연구』 13집, 한국유교학회, 2000.
이지경, 「정여창 정치사상의 재평가」, 『동양정치사상사』 3권,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4.

VI. 맺 음 말

학문을 실천하기에 힘썼던 일두 정여창은 조선조를 대표하는 유학자인 동방오현의 한 사람이다. 성종 11년(1480), 임금이 성균관에 유시하여 經明行修의 선비를 천거하도록 명하였는데, 지성균관사 서거정은 정여창을 불러 강경을 맡도록 하였다. 그러나 정여창은 학문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하여 나아가지 않았다. 정여창은 과거를 보아 입신출세하는 데 뜻이 없었지만 성종 17년(1486), 37세로 소과에 급제하여 진사가 되었다. 그 뒤, 성종 21년(1491) 12월 41세 때 별시문과 병과에 제철인으로 급제하였다. 40세가 넘어 문과에 응시한 것은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모친 최씨의 소원을 풀어주려는 효성에 비롯되었다³⁷⁾.

이처럼 효성이 지극했던 정여창은 『대학』과 『중용』을 중심으로 보다 일찍부터 학력을 높이기 위한 배움의 길을 걸었으며 당대의 이름난 학자인 이관의와 김종직을 찾아 나섰고, 학문의 벗 김굉필과의 만남을 위해서는 합천 지역을 왕래하면서 그 정분을 더해갔다. 특히 14세의 연하인 김일손과는 다정한 친구처럼 지리산을 유람하면서 『대학』을 강론하였으며 김굉필, 남효온과의 만남에서는心に 관한 토론이 활발했던 등을 보아 그의 학문이 그 만큼 깊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여창은 문과에 급제한 뒤 예문관 검열로 있다가 세자시강원 설서가 되어 동궁을 보도하는 중책을 맡았다. 하지만 연산군이 될 동궁은 사부인 趙之瑞·정여창을 좋아하지 않았다. 정여창은 성종 25년(1494) 외직을 자청하여 경상도 안음현감으로 나갔다. 그곳에서 정여창은 덕치와 예치에 의한 위민정치를 실현하고자 법도에 따른 정치를 몸소 실천하며 백성의 세금부담과 부역을 덜어 줌으로써 백성을 위한 정치에 몰두하였다. 또한 정여창은 후학을 양성하는 교육에 힘쓰고 동시에 이웃 주민들에게 덕과 예를 실천하였다.

이처럼 정여창은 도학정신에 투철하여 인의 사상을 실천 하고자 했으며, 유교

37) 최영성, 「일두 정여창의 생애와 학문역정」, 『동양철학연구』 38집, 동양철학연구회, 2004, 14쪽 참조.

적 이상주의의 사회건설을 꿈꾸었던 실천적 사상가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여창 연구는 무너져 가는 현대사회의 사회적, 정치적 모순에 반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나아가 미래 정치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一蠹集』

『佔畢齋集』

『景賢錄』

『秋江集』

『濯纓集』

국사편찬위원회(영인), 『朝鮮王朝實錄』, 1955.

정여창, 『(국역)일두집』, 민족문화추진회, 2004.

김종직, 『(국역)점필재집』, 민족문화추진회, 1999.

2. 저서

고영진, 『조선시대 사상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풀빛, 1999.

김돈, 『조선전기 군신권력관계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김우기, 『조선중기 척신정치 연구』, 집문당, 2001.

김준석, 『한국중세 유교정치사상사론 I·II』, 지식산업사, 2005.

배중호 외, 『한훤당의 생애와 사상』, 한훤당선생기념사업회, 1996.

부남철, 『조선전기 7인의 정치사상』, 사계절출판사, 1996.

이병도, 『한국유학사』, 아세아문화사, 1987.

이병휴, 『조선전기 사림파의 현실인식과 대응』, 일조각, 1999.

이병휴, 『조선전기 기호사림파 연구』, 일조각, 1986.

이성무, 『조선시대 당쟁사』, 동방미디어, 2000.

이성규 외, 『음애 이자와 기묘사림』, 지식산업사, 2004.

이수건 외, 『점필재 김종직의 학문과 사상』, 금오공과대학 선주문화연구소, 1996.

- 이수건 외, 『탁영 김일손의 문학과 사상』,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8.
- 이수건, 『嶺南士林派의 形成』,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0.
- 이종범, 『사림열전1』, 아침이슬, 2006.
- 이종범, 『사림열전2』, 아침이슬, 2007.(근간)
- 이태진 편, 『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개정판)』, 태학사, 2003.
- 이태진, 『한국 사회사 연구』, 지식산업사, 1986.
- 이태진, 『조선 유교사회사론』, 지식산업사, 1989.
- 정재경, 『정여창 연구』, 집문당, 1988.
- 조남욱, 『정여창-조선조 실천유학의 선구자』,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3.
- 최승희, 『조선초기 정치사연구』, 지식산업사, 2002.
- 최이돈, 『조선중기 사림정치구조 연구』, 일조각, 1994.
- 한영우, 『조선전기 사학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1.
- 황의동, 『한국의 유학사상』, 서광사, 1995.

3. 논문

- 김돈, 「중종대 언관의 성격변화와 사림」, 『한국사론』 10, 1984.
- 김범, 「조선 중종대의 역사상의 특징과 그 의미」, 『한국사학보』 17, 2004.
- 김범, 「조선 성종대의 왕권과 정국운영」, 『사총』 61, 역사학연구회, 2005.
- 김범, 「조선 연산군대의 왕권과 정국운영」, 『대동문화연구』 5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6.
- 김기현, 「정여창 도학의 특색에 관한 小考」, 『동양철학연구』 38집, 동양철학연구회, 2004.
- 김용흠, 「조선전기 훈구·사림의 갈등과 그 정치사회적 함의」, 『동방학지』 124, 2004.
- 김정신, 「조선전기 사림의 ‘공의식’과 군신공치론 - 조광조·이언적의 학문·정치론」, 『학림』 21, 2000.

- 김훈식, 「한훤당 김굉필에 대한 조선시대의 평가와 그 의미」, 『동방학지』 13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소, 2006.
- 김호성, 「一蠹 鄭汝昌의 政治思想」, 『유교사상연구』 13집, 한국유교학회, 2000.
- 송용섭, 「중종대 기묘사림의 구성과 출신배경」, 『한국사론』 45, 2001.
- 안재순, 「一蠹 鄭汝昌의 修養論」, 『東洋哲學研究』 제38집, 동양철학연구회, 2004.
- 이병휴, 「15世紀後半 · 16世紀初의 社會變動과 金宗直 및 그 門人의 對應」, 『歷史教育論集』 35, 역사교육학회, 2005.
- 이병휴, 「朝鮮初期의 士林派와 濯纓의 현실인식의 대응」, 『민족문화연구총서』 20,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98.
- 유명종, 「일두 정여창」, 『한국인물유학사』 1, 한길사, 1996.
- 윤정, 「조선 중종 전반기 정국구도와 정책론」, 『역사와 현실』 25, 1997.
- 이지경, 「鄭汝昌 政治思想의 再評價」, 『동양정치사상사』 제3권,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4.
- 정병련, 「일두 정여창의 심성론」, 『유교사상연구』 13집, 한국유교학회, 2000.
- 정우락, 「一蠹 鄭汝昌 文學思想의 樣相」, 『東洋哲學研究』 제38집, 동양철학연구회, 2004.
- 조남국, 「一蠹 鄭汝昌의 生涯와 學行」, 『유교사상연구』 13집, 한국유교학회, 2000.
- 조남욱, 「일두 정여창의 윤리사상」, 『유교사상연구』 13집, 한국유교학회, 2000.
- 최영성, 「一蠹 鄭汝昌의 生涯와 學問歷程 - 諸家記述을 중심으로」, 『東洋哲學研究』 제38집, 동양철학연구회, 2004.
- 최일범, 「一蠹 鄭汝昌의 教育精神」, 『유교사상연구』 13집, 한국유교학회, 2000.

황의동, 「일두 정여창의 이기론」, 『유교사상연구』 13집,
한국유교학회, 2000.